

씨어스테크놀로지 (458870.KQ)

‘스마트 병동’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투자의견

BUY(신규)

목표주가

180,000 원(신규)

현재주가

100,000 원(11/13)

시가총액

1,267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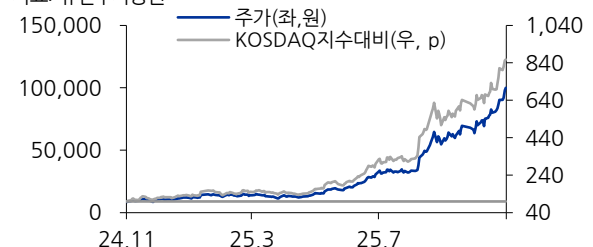
바이오/제약 권해순_02)368-6181_hskwon@eugenefn.com
RA 이다빈_02)368-6144_db23@eugenefn.com

-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KQ)에 대해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8만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함
- ‘스마트 병동’ 시대를 여는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이하 씨어스)는 웨어러블 기반의 AI 진단/모니터링 플랫폼 기업임.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병동 시대가 다가오면서 씨어스의 실적 및 기업가치 고성장이 예상됨. 씨어스는 심전도 분석 솔루션 mobiCARE™(이하 모비케어)와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이하 씽크)를 개발·생산·판매함. 국내 상위 제약사 대응계약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양사 영업이 시너지를 내며 국내 시장 침투 속도가 증가 중
- 씽크 출시 5년, 모비케어 출시 6년 차인 2025년 흑자 전환, 성장 가속화: 2025년 상반기 씨어스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20억원, 9억원으로 흑자 전환함. 병원들이 씽크, 모비케어 도입이 가속화되며 플랫폼 출시 각각 5년, 6년 만인 2025년 영업이익 기준 연간 흑자 전환이 예상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고성장세가 주목받으며 시가총액 1.27조원까지 상승하였으나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 영역 확대와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됨
- 4 가지 차별화: ① 기술의 내재화: 데이터 디지털화 수단인 핵심 제품들을 자체 생산함, ② AI 알고리즘 고도화: 데이터 축적과 임상 연구를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을 제공함, ③보험 급여 기반의 상용화: 국내 최초로 ECG(Electrocardiogram, 심전도) 입원 모니터링 급여를 확보 ④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대: first mover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2026년부터 해외 사업 본격화: 모비케어의 미국과 중동 시장 진입을 준비 중. 연내 FDA 승인을 획득하여 2026년 초 미국, 중동 출시, 2026년 하반기 미국에서 보험 등재를 목표로 함. 씨어스는 2027년부터 해외 사업 실적이 국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해외 부문 성장이 시작된다는 점이 씨어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지지함
- 글로벌 경쟁사 비교: 아이리듬(iRhythm, NASDAQ: IRTC)은 미국의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5.4bn에 달함. 2025년 예상 매출액은 \$700mn을 상회하며, 2027년 흑자 전환 전망. 씨어스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동과 미국 시장에서 모두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씨어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전망

주가(원, 11/13)	100,000		
시가총액(십억원)	1,267		
발행주식수	12,666천주		
52주 최고가	101,900원		
최저가	8,540원		
52주 일간 Beta	0.73		
60일 일평균거래대금	115억원		
외국인 지분율	0.0%		
배당수익률(2025E)	0.0%		
주주구성			
이영시 (외 5인)	28.3%		
변동준 (외 1인)	5.6%		
채정훈 (외 1인)	0.1%		
주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43.9	529.8	963.3
절대기준	50.6	555.3	996.5
(원, 십억원)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BUY	-	-
목표주가	180,000	-	-
영업이익(25)	13	-	-
영업이익(26)	34	-	-

12월 결산(십억원)	2024A	2025E	2026E	2027E
매출액	8	42	77	134
영업이익	-9	13	34	66
세전손익	-9	13	34	66
당기순이익	-9	13	30	59
EPS(원)	-707	996	2,403	4,689
증감률(%)	na	흑전	141.2	95.2
PER(배)	na	100.4	41.6	21.3
ROE(%)	-60.1	45.0	61.2	62.8
PBR(배)	6.2	36.7	19.5	10.2
EV/EBITDA(배)	na	85.3	34.6	17.5

자료: 유진투자증권



1.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8 만원으로 신규 편입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8 만원을
제시. 목표주가는
2027E 순이익에
PER 40 배를 적용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KQ)에 대해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8 만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7 년 예상 당기순이익 590 억원에 대해서 PER 40 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27 년은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3 년차에 접어드는 시기로 스마트 병동으로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동 및 미국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며 글로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Target PER 40 배는 실적 고성장 단계에 있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Target 밸류에이션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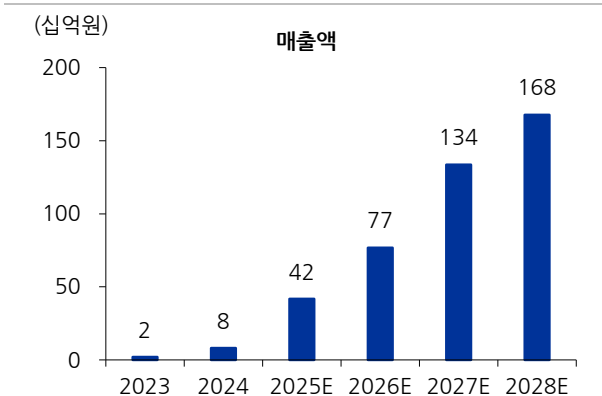
첫째,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초입 단계에 진입한 시점에서 확고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 2026 년 미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목표로 FDA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외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경우 실적 성장의 2 차 모멘텀이 기대된다.

셋째, 2025 년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익 고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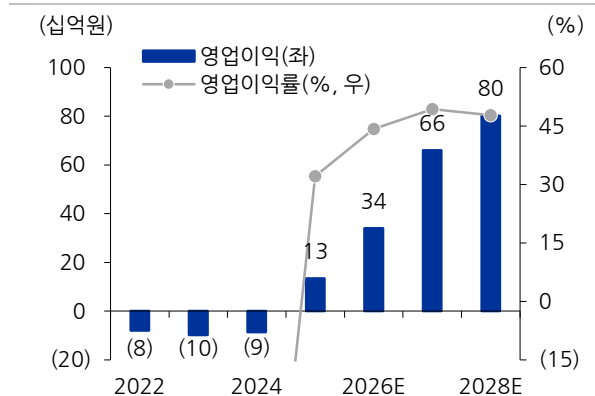
넷째, 씨어스의 사업모델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데이터 축적, AI 알고리즘 고도화 → 신규 서비스 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환자 관리, 병원 데이터 통합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표 1.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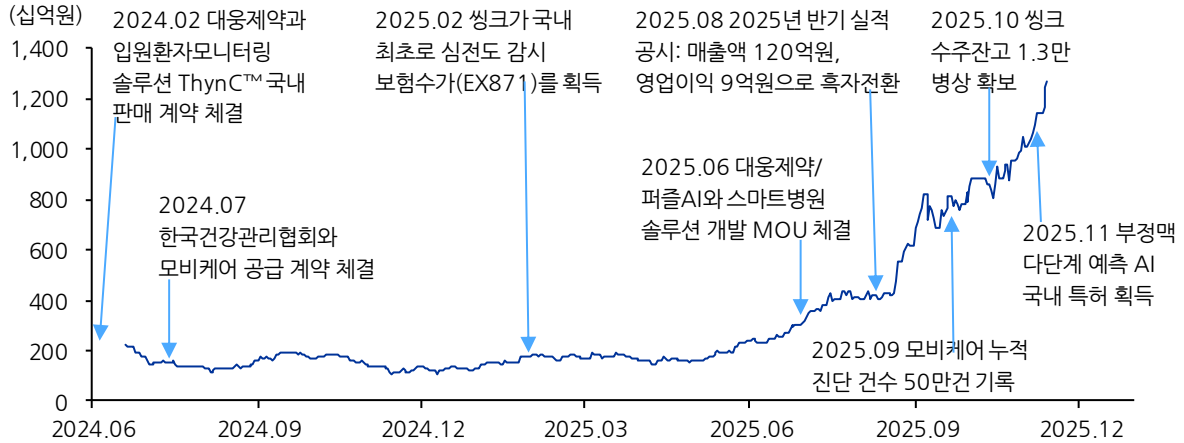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도표 2. 씨어스테크놀로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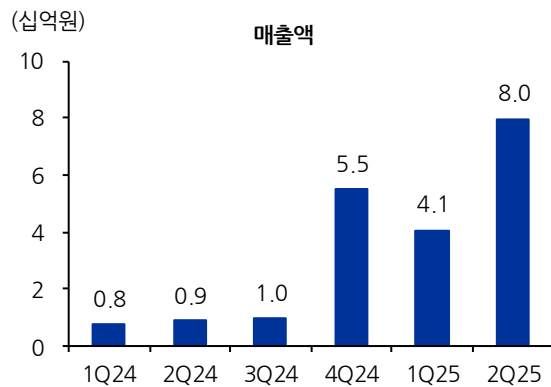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도표 3. 씨어스테크놀로지 주가 및 이벤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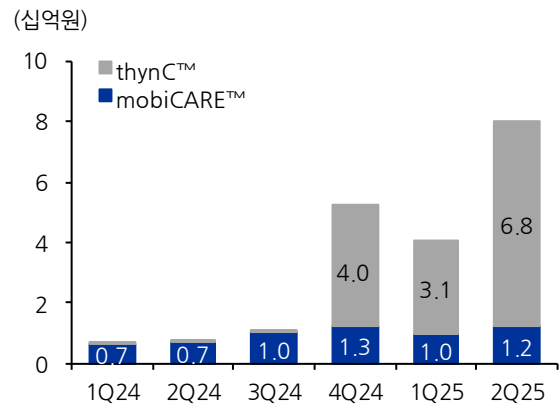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씨어스테크놀로지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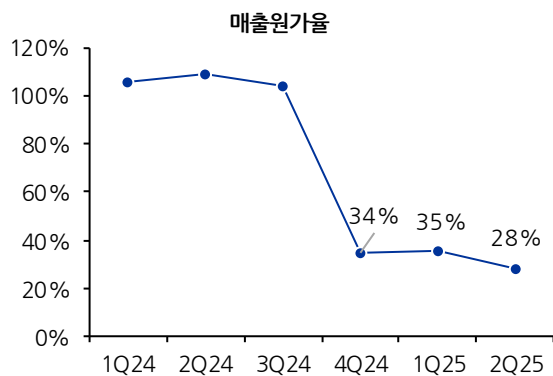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씨어스테크놀로지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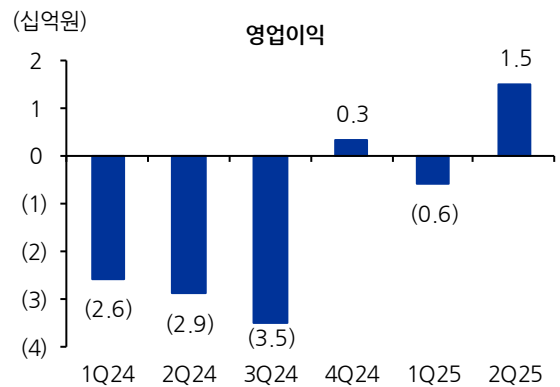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씨어스테크놀로지 분기별 원가율 추이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7. 씨어스테크놀로지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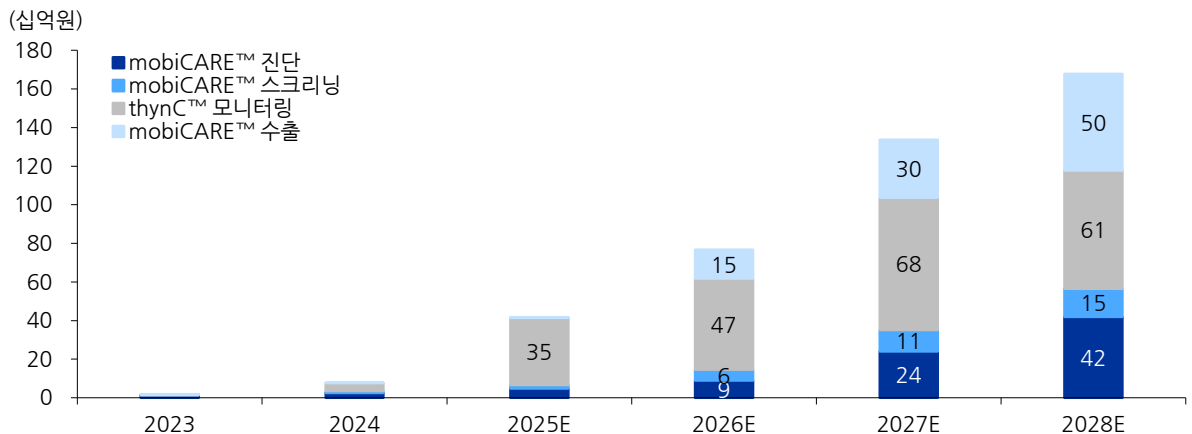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2. 실적 추이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가 매출
성장 대부분을 견인
하며, 웨어러블 심전
도 분석 서비스 모비
케어가 이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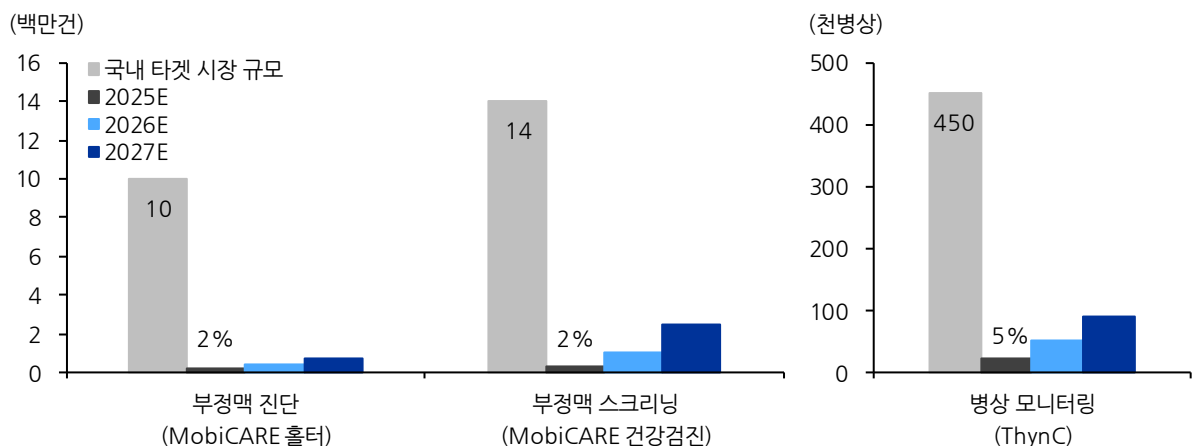
씨어스는 빠른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3 년 매출은 19 억 원이었으나, 2024 년 81 억 원, 2025 년 205 억 원, 2026 년 340 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 중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가 매출의 대부분을 견인하며,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 모비케어 진단 및 건강검진용 스크리닝 서비스가 이를 보완한다. 특히 국내 부정맥 진단 시장(연 1,000 만 건), 스크리닝 시장(연 1,400 만 명), 병상 모니터링 시장(70 만 병상, 씨어스 목표는 45 만 병상) 대비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 2%, 0.8% 수준에 불과(출처: 씨어스 2 분기 IR 자료)해 향후 업사이드 포텐셜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병동·AI 기반 모니터링 수요 확대와 first mover 로서 씨어스의 점유율 상승에 따라 매출 액이 현 수준의 큰 폭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8. 씨어스 매출 추이 및 전망: 진단 → 스크리닝 → 모니터링 서비스 확장 전략에 따른 실적 성장 본격화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9. MobiCARE, ThynC의 국내 목표 시장 대비 실적 전망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주: 부정맥 진단/스크린 실적 추정치는 누적 건수 기준; 병상 모니터링 도입 병상 추정치는 누적 수주 기준

씨어스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은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도입 확산 속도가 빠름

씨어스는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다. 2024년 매출은 약 81억 원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417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성장은 대응계약과의 마케팅 협력에 힘입은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와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 '모비케어'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기인한다. 두 서비스 모두 보험 수가를 확보하여 의료기관이 도입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시장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싱크는 스마트 병동 구축 수요 증가, 설치 기간 단축 등에 힘입어 병상 설치 확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 AI 기반 분석 서비스를 통해 수익구조가 견고해질 것

2026년 및 2027년 매출액도 각각 767억 원(+84%yoy), 1,337억 원(+74%)으로 고성장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2025년 134억 원(흑전)에서 2026년 340억 원(153%yoy), 2027년 659억 원(+94.2%yoy)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은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매출 성장뿐 아니라 원가율 하락과 플랫폼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에 의한 구조적 마진 개선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 분석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데이터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매출 모델이 안정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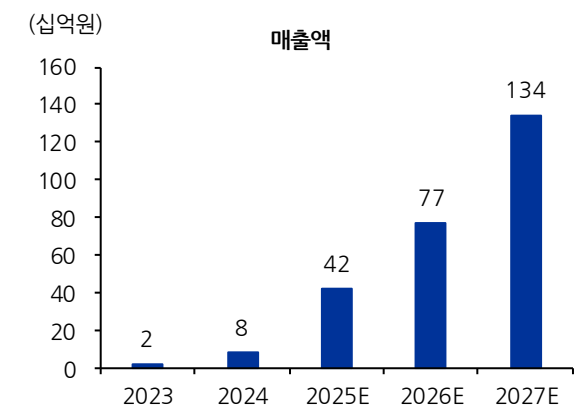
2027년 해외진출 본격화되며 실적 성장세가 도약할 전망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2027년은 씨어스의 실적 성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모비케어'의 미국 FDA 승인과 중동 지역 분석센터 설립이 구체화되면, 2028년에는 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 진입은 씨어스의 장기 성장성을 강화할 요인이다.

국내외 사업 확대로 수익 고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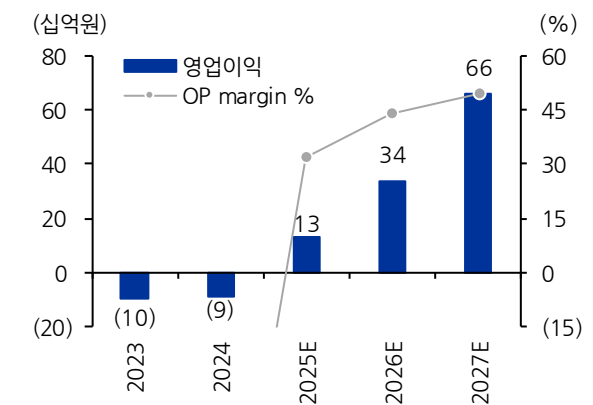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국내 스마트 병동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며, 향후 매출 고성장과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표 10.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도표 11. 씨어스테크놀로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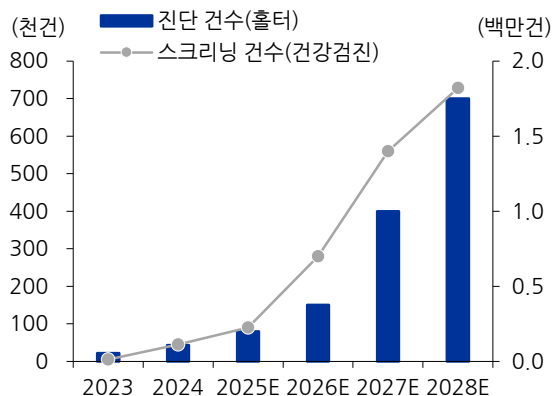
국내 매출 고성장 및
해외 모비케어 매출
본격화로 2027 년
매출액 1,337 조원,
OPM 49% 기대

씨어스의 2027 년 예상 실적 매출 1,337 억 원, 영업이익률 49% 수준은 '씽크'의 누적 설치 병상 약 9 만 개, '모비케어' 진단·스크리닝 검사 건수의 두 자릿수 증가, 그리고 미국·UAE·인도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약 300 억 원 이상의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AI 기반 분석 서비스와 유지보수·소모품 반복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고, 영업 레버리지가 강화되어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가정을 반영하였다.

2027 년 예상 순이익
590 억원 기준
시가총액 2 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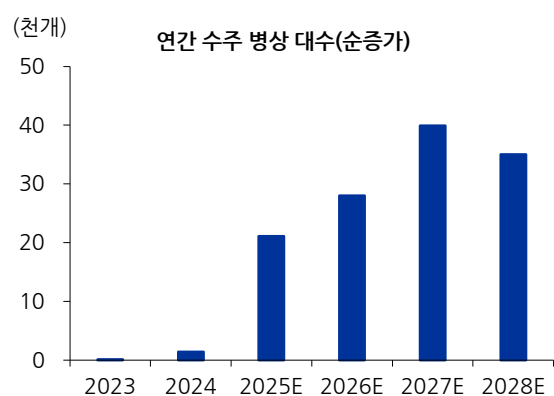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2027 년 세후 순이익은 약 590 억 원에 달하며, PER 40 배 적용 시 시가총액 약 2 조 원은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판단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조기 안착과 병상 설치 속도의 가속화를 전제로 한 다소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상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이다. 대웅제약 유통망의 확장력, 경쟁사들의 진입 현황, FDA 승인 일정,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속도, 향후 글로벌 투자 전략 등에 따라 달성 시기는 변동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도표 12. 모비케어 진단, 스크리닝 건수 가정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주: 2025 년 이전의 건수는 매출액 규모를 역산하여 추정된 데이터

도표 13. 씽크 도입 병상 순증가 가정치(수주 기준)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추정

3.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초기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 확대와 이에 부응하는 의료 IT 기술의 상용화에 힘입어 초기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률은 높으나 간호 인력은 부족함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 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러한 높은 의료 이용률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 3.6 만 개 중 약 80% 이상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는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5.2명으로 평균 8.4 명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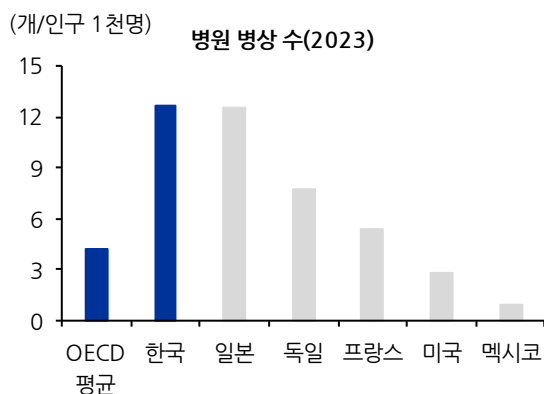
환자 모니터링 효율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이처럼 병상 대비 간호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모니터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씨어스는 스마트 병동 구현, 의료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직접 대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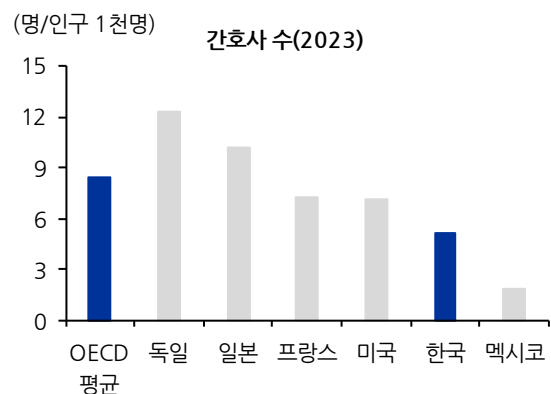
특히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성장 초기에 진입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AI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병동 구현과 의료 인력 효율화라는 핵심 과제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당사는 씨어스테크놀로지의 향후 실적 성장과 글로벌 확장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도표 14. OECD 주요국 병원 병상 수(2023)



자료 OECD,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OECD 주요국 간호사 수(2023)



자료 OECD, 유진투자증권

4. 씨어스테크놀로지 주요 사업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AI 분석 알고리
즘 기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

씨어스테크놀로지(이하 씨어스)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환자의 생체신호(심전도,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호흡 등)를 수집하고, 이를 AI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진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AI를 통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통합 관
리하여 궁극적으로
는 스마트 병동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

플랫폼 기반의 사업 확장: 씨어스는 초기 단계에서는 심전도(ECG)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집중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생체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워크플로우 개선, 병상 단위 모니터링, 환자 맞춤형 알람 체계 구축 등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임상 근거를 축적하며 신규 서비스 개발하는 등 중국에는 스마트 병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중동을 시작
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심
전도 모니터링 시장
의 표준으로 성장하
는 것이 목표

지역적 확장: 씨어스는 미국, 중동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향후 심전도 모니터링 사업 모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모비케어의 510(k) FDA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동 병원 시스템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 미개척 시장인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지역 다각화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스마트 병동의 시대를 개척: 씽크와 모비케어

(1) 씽크(ThynC™)

씽크: 스마트 병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AI
모니터링 플랫폼

씨어스가 2020 년 처음 개발한 플랫폼 '씽크'는 입원 환자의 주요 생체 신호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 체온, 호흡 등)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 분석하여 스마트 병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니터링 플랫폼이다. 무선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하여 일반 병상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동되어 의료진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30 만개의
병상에 씽크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

씨어스는 국내에서 씽크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 시장 규모를 약 45 만 병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병상 약 70 만개 중 65%에 달하는 수준으로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것이다. 2024 년 말 기준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주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병상 수는 약 34 만 개이며, EMR 시스템 활용 기관 비율이 약 80% 임(2025 년 3 분기 말 기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씽크를 설치할 수 있는 병상의 수는 약 30 만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의료기관이 개원되고 향후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타겟 시장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3 천여
병상에 설치됨. 향
후 대형 병원으로도
도입 확대될 전망

씨어스는 2025 년 2 분기 말 기준 약 3 천 개의 병상에 씽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북삼성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국내 120 여개의 병원에 설치되었다. 기존의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은 주로 중환자실에 설치되었으나 일반 병상에도 설치되며 확대되고 있다. 점차 병동 단위에서 병원 전체 도입으로 확산되고 중소형 병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도입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표 16.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씽크 (ThynC™,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씨어스는 관련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고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씽크 도입 이후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별로 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상용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씨어스는 이미 관련 수가 (급여 코드 EX871, E6544, E7231 등)를 확보하여, 의료진이 입원환자에게 씽크를 처방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씨어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AI 알고리즘과 임상 연구를 지속한다는 점과 웨어러블 기기,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생산하여 기술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점에 있다. 유사한 역량을 보유한 경쟁사가 아직은 부재한 만큼, 시장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씨어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며 환자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경쟁사들이 진입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데이터의 규모와 품질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표 17.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씽크 (ThynC™,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2) 모비케어(mobiCARE™)

모비케어: 웨어러블
기기로 심전도를 측
정하고 AI 분석 엔진
을 통해 진단을 지원
하는 통합 디지털 심
전도 분석 플랫폼

씨어스의 모비케어는 2024 년 말 상용화된 웨어러블 심전도(ECG) 분석 솔루션
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진
단 플랫폼이다. 환자가 착용하는 얇은 패치형 센서를 통해 장시간의 심전도 데이
터를 수집하고, AI 기반 분석엔진이 이를 자동으로 판독해 이상 리듬이나 부정맥
을 탐지한다. 분석 결과는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리포트로 제공
되며, 전문의의 감수 절차를 거쳐 진단의 정확성을 보완한다. 이로써 부정맥 전
문의가 없는 일반 내과나 중소병원에서도 신속하고 정밀한 부정맥 진단이 가능
해졌다.

의료기관은 모비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수
가를 청구하여 수익
창출 가능. 환자의
접근성도 향상됨

모비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기관이 구독형 모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병원은 일정 단위로 사용권을 구입해 환자에게 패치(홀터 모니터: 환
자가 착용하고 활동하면서 심장의 전기신호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부
착하면 되고, 심전도 분석과 리포트 작성은 씨어스와 연계된 전문 분석센터에서
수행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활용함과 동시에 건강보
험 수가(급여 코드 E6545, E6556, E6557)를 청구할 수 있어, 기술 도입 후 곧바
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반복적 수익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의료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환
자 입장에서 모비케어는 일상생활 중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병원
내 장비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모비케어는 진단 프
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검사 정확도를 높임

이처럼 모비케어는 '웨어러블 → 데이터 전송 → AI 분석 → 전문의 감수 → 리포
트 제공'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고, 기존 홀터(Holter) 검사 대비 효
율과 정확도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도표 18.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모비케어 (mobiCARE™, 심전도 분석 솔루션)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모비케어 해외 시장 확대 추진 중.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의 표준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잠재력 존재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도 모비케어는 클라우드 기반 진단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미 중동(UAE), 동남아(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지에서 현지 판독 기관 및 병원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FDA 510(k) 승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해외로 거점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진단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구독 모델을 결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모비케어는 원격진단 및 예측의료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

결국 모비케어는 환자 데이터 수집부터 AI 진단, 임상 보고까지 통합된 디지털 심전도 분석 플랫폼으로, 의료기관의 진단 역량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축적되는 대규모 ECG 데이터는 씨어스의 AI 알고리즘 고도화와 신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단과 예측의료까지 아우르는 핵심 성장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9.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모비케어 (mobiCARE™, 심전도 분석 솔루션)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6.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글로벌 확장 단계
본격 진입: 2026 년
부터 수출 시작

씨어스는 미국과 중동 시장을 양 축으로 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씨어스는 2026 년을 기점으로 매출의 3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27 년에는 국내 매출액과 맞먹는 해외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동과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당사는 아직 해외 사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2027E 매출액의 20%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함)

(1) 중동 시장: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번째 교두보

2026 년 초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모비케어 서비스
공식 개시 예정

중동 시장은 회사의 첫 번째 교두보이다. UAE 에서는 Life Sign 과 협력해 현지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26 년 1 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중동 시장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UAE 에서 진행된 실증사업(PO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지 경쟁사인 아이리듬(iRhythm)보다 낮은 가격과 빠른 공급 능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임상이 마무리되면 2026 년 초부터 두바이·아부다비 지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동의 심전도 검사
수가는 한국의 5 배.
씨어스 MENA 를
통해 중동 사업
확대할 계획, UAE
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적극적

현지 건강보험적용 인구 약 100 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심전도 검사 1 건당 수가가 약 6 만 원 수준인 반면, 중동에서는 약 35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출뿐 아니라 수익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 에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씨어스는 이를 위해 현지 법인인 '씨어스 MENA'(Seers Middle East & North Africa)를 설립해 정부·병원 단위로 영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동, 특히 아랍에미리트(UAE)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의료 수요 구조, 기술 인프라 수준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UAE 는 국가 차원에서 'Digital Government Strategy 2025'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고,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원격의료·AI 진단·웨어러블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이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외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의료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혁신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미국 시장: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

2025 년 내 FDA
승인을 받고 2026
년 하반기 메디케어
수가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함

씨어스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략의 두 번째 축이자 가장 큰 잠재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 의료 네트워크 기업 CBS 및 Apollo One Health 와 협력해 분석센터를 설립하고, FDA 인증을 바탕으로 구독형 ECG 모니터링 서비스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 년 말 FDA 품목허가(510k)를 기대하고 있는데, 승인 직후에는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회원제 모델인 '메디컬 컨시어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는 미국 내 약 200~300 만 명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고급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6 개월간 비급여 진료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한 뒤, 2026 년 하반기에는 메디케어(미국 연방건강보험) 수가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심전도 검사
수가는 국내의 7 배,
자회사 통해 미국
사업 운영 예정

미국 내 심전도 검사는 수가가 약 45 만 원으로, 국내 대비 약 7 배 높은 단가 구조를 지닌다. 현지 운영은 자회사 '씨어스글로벌'(Seers Global)을 통해 진행되며, 캔자스시티의 파트너사 CBS 와 협력해 진단부터 배송 및 분석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씨어스는 글로벌 경
쟁사 아이리듬 대비
서비스의 속도, 유
연성, 품질 측면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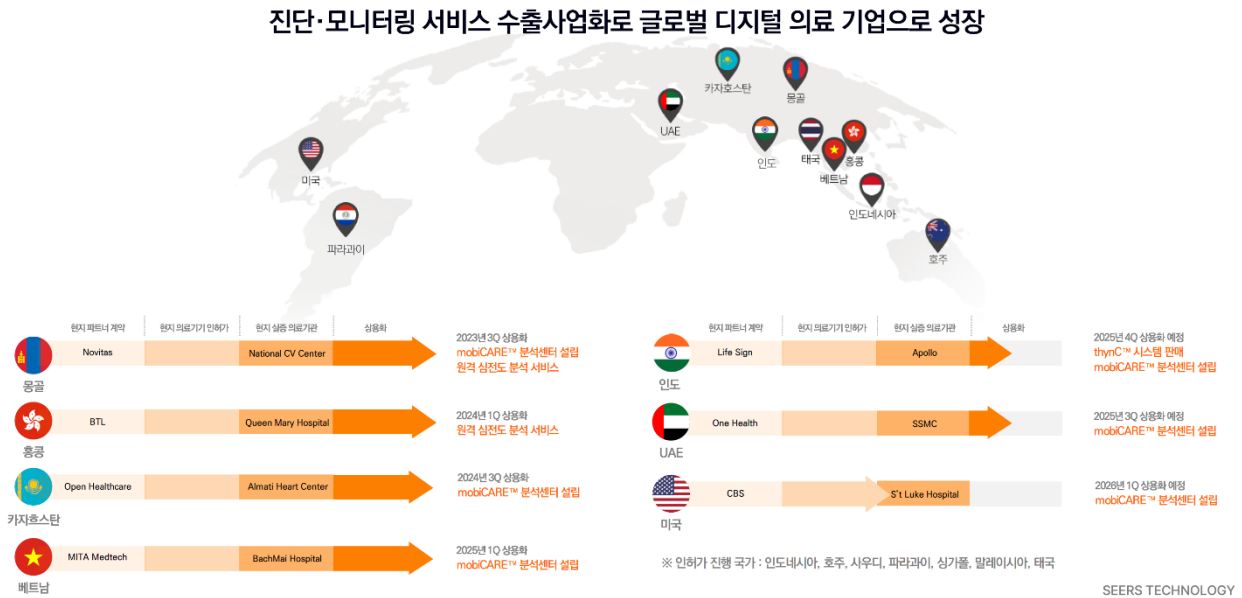
씨어스는 아이리듬(iRhythm) 과 같은 기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경쟁에서도 속도·유연성·품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아이리듬은 미국 내 주요 병원과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기 배송 및 판독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반면, 씨어스는 6~7 개 거점 지사를 구축해 24 시간 내 배송 및 판독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개발한 점착소재 기술과 고도화된 ECG 알고리즘을 강점으로 내세워 진단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3) 해외 시장 중장기 전략

씨어스의 해외 사업은 단순 수출이 아닌 글로벌 시장 내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및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며, 인도 현지 병원 네트워크와의 계약이 2025 년 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씨어스의 해외 사업은 단순한 기기 수출이 아닌, 데이터 분석·AI 기반 진단 솔루션을 결합하고 현지 인허가 취득, 파트너십 구축, 의료 기관 실증, 상용화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내재한 플랫폼 모델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표 20. SEERS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7. 글로벌 경쟁사: 아이리듬 테크놀로지스(iRhythm Technologies)

아이리듬은 2009
년 ECG 모니터링
서비스 Zio Patch의
FDA 승인을 획득,
현재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시장 점유
율 70%를 차지

아이리듬 테크놀로지스(NASDAQ: IRTC, 이하 아이리듬)는 2006년 설립되어 2016년 나스닥에 상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웨어러블 패치 기반의 장기간 심전도(ECG) 모니터링 서비스 Zio® 시리즈를 중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리듬은 1세대 제품인 Zio Patch(심전도 데이터 14일 연속 기록)를 개발하여 2009년에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였다. 아이리듬의 대표 제품군에는 14일 연속 패치 착용을 통해 심전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장기간 연속 모니터링 서비스(Zio® monitor, Zio® XT),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하여 부정맥 발생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모바일 원격 측정 서비스(Zio AT®) 등이 포함된다. 2025년 기준 아이리듬은 미국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시장(LTCM)의 약 70%를 점유하며, 모바일 심전도 원격 감시(MCT) 시장에서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리듬 현재
시가총액 \$5.4bn,
2025E 매출액 기준
P/S 배수 약 7배로
2027년 흑전 전망

아이리듬의 현재 시가총액은 \$5.4bn 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2025년 예상 매출 \$738mn 기준 P/S 배수 약 7.4 배 수준이다(11/13 기준).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이나, 높은 매출 성장률(연평균 20% 이상)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반영해 업종 평균(5~6 배)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는 향후 2027년 흑자 전환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도표 21. 아이리듬 테크놀로지스(NASDAQ: IRTC) 주가 및 이벤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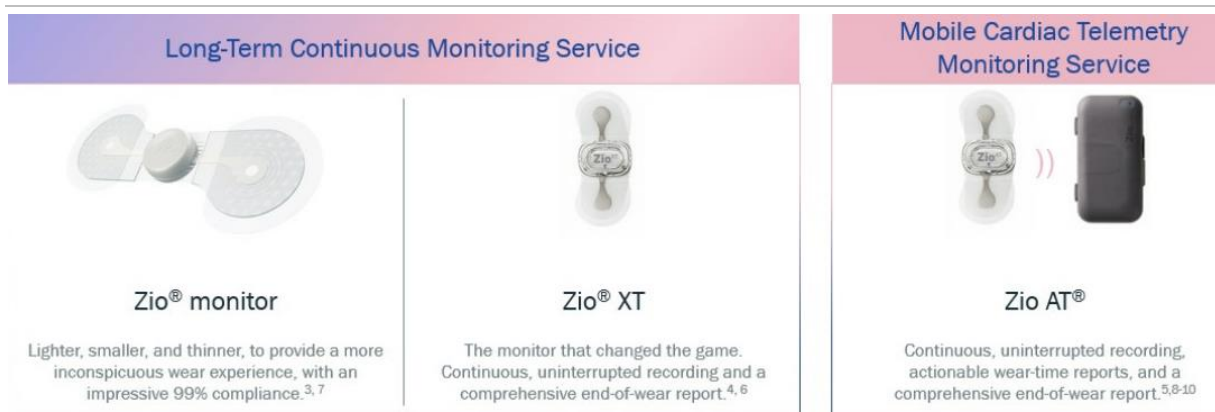


자료: 아이리듬,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5E 예상 실적은 블룸버그 컨센서스

아이리듬은 AI 알고리즘 고도화, 차세대 멀티 모달 플랫폼 개발을 통해 통합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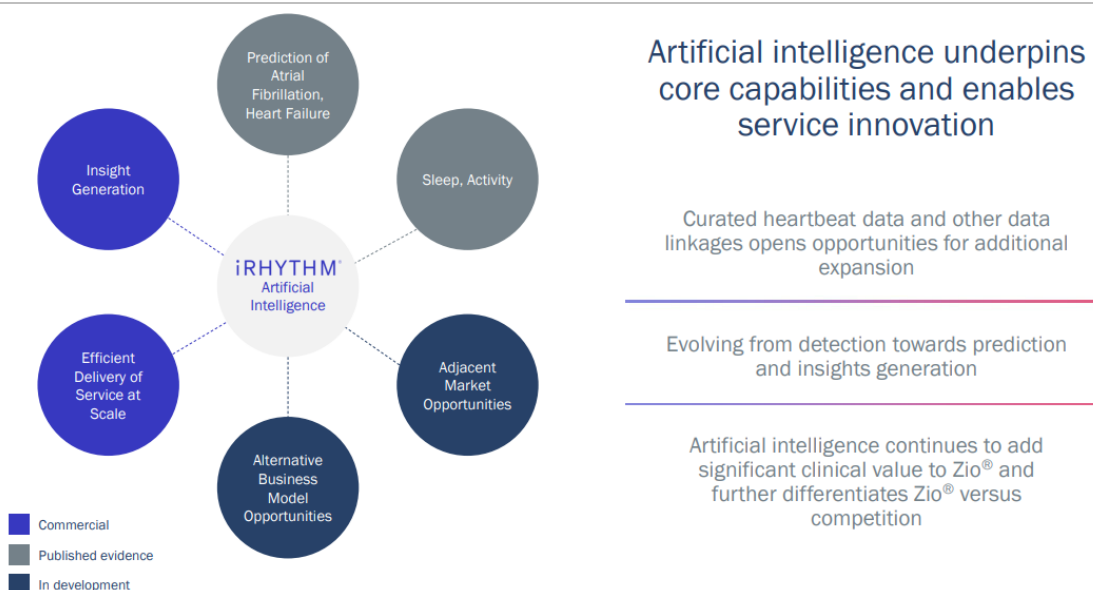
아이리듬의 심전도 측정 및 분석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진단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기존 '탐지(detection)' 중심에서 '예측(prediction)'과 '통찰(insight generation)'로 발전하고 있다. 2025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이리듬의 AI 플랫폼은 34층(34-layer) 딥러닝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맥, 심부전, 수면 상태 등을 예측하는 기능으로 확장 중이다. 또한 2024년 바이오인텔리센스(BioIntelliSense)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활동량 등 다중 바이탈 센싱 기능을 ECG와 통합한 차세대 멀티 모달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심전도 기반 모니터링을 넘어 병원-가정-원격 진료를 연결하는 통합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표 22. 아이리듬의 심전도 모니터링 및 분석 플랫폼 Zio® 시리즈



자료: 아이리듬,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아이리듬의 AI 알고리즘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략



자료: 아이리듬,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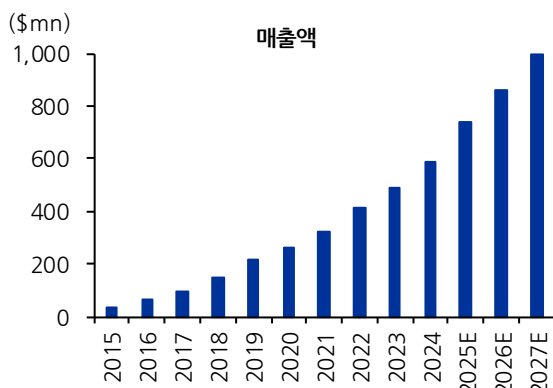
아이리듬의 심전도
장기간 연속 모니터
링 서비스, 모바일
원격 측정 서비스
처방 고성장 중

아이리듬의 2024 년 매출액은 \$591.8mn 로 20%yoy 증가하였고, 매출 증가와 함께 매출총이익률은 68.9%까지 개선되었다. 다만 운영비용이 여전히 높아 2024 년 \$113.3mn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5 년 3 분기 매출액은 \$192.9mn(+31%yoy)으로 고성장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71.1%으로 개선되었다. 장기간 연속 모니터링 서비스(Zio monitor)와 모바일 원격 측정 서비스(Zio AT)의 신규 처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5E 매출액
가이던스 \$735~
740mn로 제시,
2027E 조정 영업이익
익 흑자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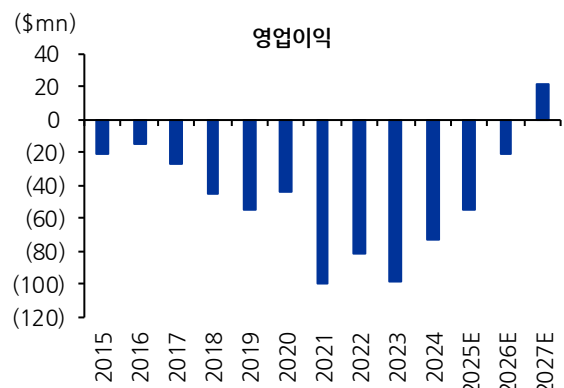
아이리듬은 Zio 서비스의 빠른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2025 년 3 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 년 연간 가이던스를 \$735mn~740mn(중간값 기준 +25%yoy, 기존 가이던스 \$720~730mn)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매출 성장을 증가에 따라 2025 년 조정 EBITDA 마진은 8.25~8.75%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아이리듬은 전망하고 있다. 원가율은 약 30% 수준이나 높은 판관비로 인해 아직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7년에는 매출액이 \$1bn 에 근접한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조정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4. 아이리듬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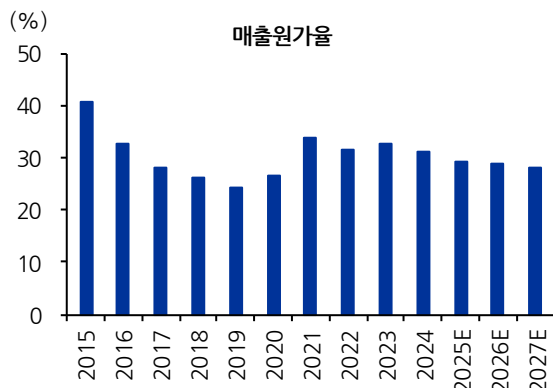
자료: 아이리듬,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실적 추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도표 25. 아이리듬 연간 조정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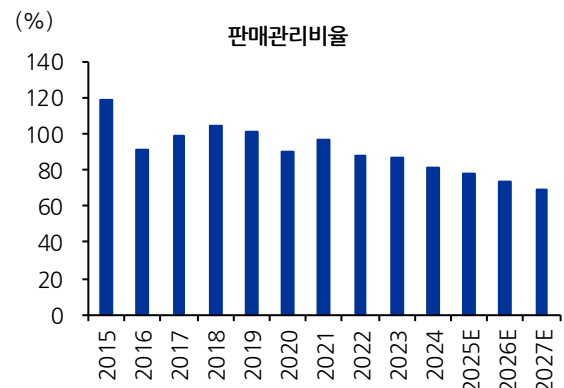
자료: 아이리듬,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실적 추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도표 26. 아이리듬 연간 매출원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리듬,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실적 추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도표 27. 아이리듬 연간 판매관리비율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리듬,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실적 추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Appendix. 회사 개요

(1) 경영진 구성

씨어스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신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R&D 전문 조직

씨어스테크놀로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출신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한 R&D 중심의 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창업자이자 CEO 인 이명식 대표는 20년 이상 IoT 및 무선통신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 온 인물로, CTO 송희석, CDO 방규석, CSO 강대엽, CFO 이영신 등 전문경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97 명의 전문 인력과 12 명의 의료 자문진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축적된 실험적 경험과 의료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도표 28. SEERS 팀 소개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2) 기술적 경쟁력

웨어러블 기기 및
AI 알고리즘 개발
등 핵심 기술들을
모두 내재화함

씨어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2010년대 초반부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선통신 기술을 의료 서비스로 발전시켜 온 기술 축적력에 있다.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의료용 무선통신 솔루션과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해 식약처, CE, FDA 인증을 모두 획득했고, 이후 웨어러블 심전계·체온계·펄스 옥시미터 등 다채로운 바이오센서 기술을 내재화하였다. 특히 AI 분석 기술과 임상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심방세동, 심부전, 패혈증, 심정지 등 주요 질환의 조기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을 구축한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도표 29. SEERS 연혁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3) 산업적 확장성

AI 기반 생태계 구축 및 확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수직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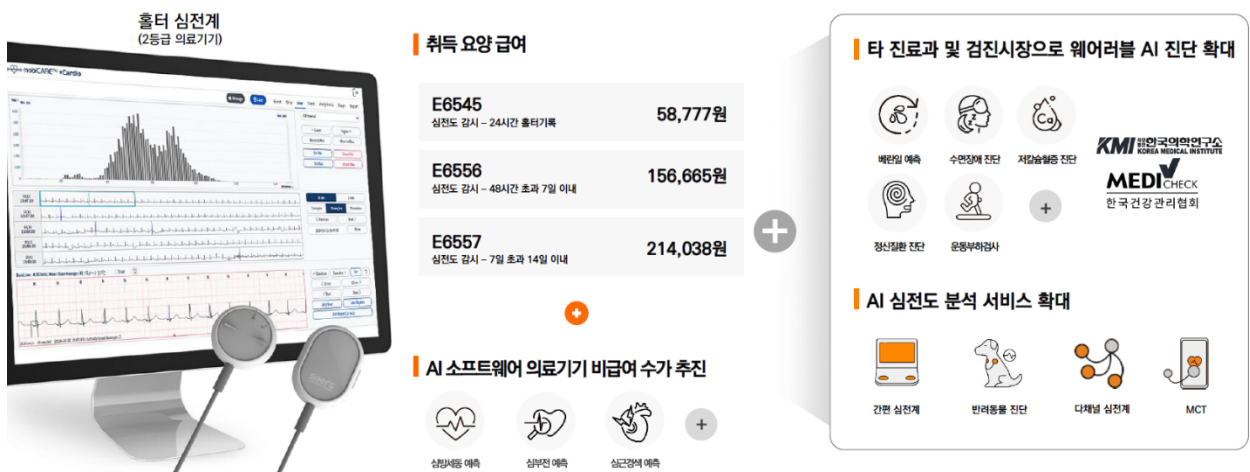
씨어스는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IoT 네트워크, 클라우드 분석 서버, 피부 점착 바이오 소재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요소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모든 제품을 평택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GMP-ISO13485 인증 제조 인프라를 갖추었다. 또한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 동물용 심장질환 진단, 산부인과 배란 예측, 정신과·수면장애 진단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이러한 수직계열화 된 기술 구조와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이야말로 씨어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30. SEERS 플랫폼 확장성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업셀링 및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통한 thynC™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고도화



AI 심전도 분석 서비스 확대 및 타 진료과 확장을 통한 mobiCARE™ 진단 플랫폼 고도화



자료: 씨어스테크놀로지, 유진투자증권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KQ)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23A	2024A	2025E	2026E	2027E
자산총계	17	28	45	79	144
유동자산	6	16	32	63	123
현금성자산	4	11	17	38	81
매출채권	1	4	12	19	33
재고자산	1	1	3	5	9
비유동자산	11	12	13	16	21
투자자산	0	1	2	2	2
유형자산	11	10	11	13	18
기타	0	0	0	0	1
부채총계	9	7	11	14	20
유동부채	7	4	8	11	17
매입채무	1	1	5	8	15
유동성이자부채	5	2	2	2	2
기타	1	1	1	1	1
비유동부채	2	3	3	3	3
비유동이자부채	1	1	1	1	1
기타	1	2	2	2	2
자본총계	8	21	34	65	124
지배지분	8	21	34	65	124
자본금	5	6	6	6	6
자본잉여금	38	60	60	60	60
이익잉여금	(36)	(45)	(33)	(2)	57
기타	0	0	1	1	1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8	21	34	65	124
총차입금	6	3	3	3	3
순차입금	2	(8)	(14)	(36)	(78)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23A	2024A	2025E	2026E	2027E
영업현금	(8)	(11)	9	26	49
당기순이익	(10)	(9)	13	30	59
자산상각비	1	1	1	2	2
기타비현금성손익	0	1	1	0	0
운전자본증감	1	(4)	(6)	(6)	(12)
매출채권감소(증가)	0	(4)	(8)	(7)	(14)
재고자산감소(증가)	(0)	(0)	(2)	(2)	(4)
매입채무증가(감소)	0	1	4	3	6
기타	1	(1)	(0)	0	0
투자현금	(1)	(1)	(3)	(4)	(7)
단기투자자산감소	0	(1)	0	0	0
장기투자증권감소	0	0	(0)	0	0
설비투자	1	0	2	4	7
유형자산처분	0	0	0	0	0
무형자산처분	0	(0)	(0)	(1)	(1)
재무현금	3	19	(0)	0	0
차입금증가	3	(3)	(0)	0	0
자본증가	0	22	0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현금 증감	(6)	7	6	22	42
기초현금	10	4	11	17	38
기말현금	4	11	17	38	81
Gross Cash flow	(8)	(7)	14	32	61
Gross Investment	0	4	8	10	19
Free Cash Flow	(9)	(11)	6	22	42

자료: 유진투자증권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3A	2024A	2025E	2026E	2027E
매출액	2	8	42	77	134
증가율(%)	63.5	329.7	415.0	83.9	74.2
매출원가	3	5	14	25	47
매출총이익	(1)	3	28	51	87
판매 및 일반관리비	9	12	15	17	21
기타영업손익	21	35	20	20	20
영업이익	(10)	(9)	13	34	66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53.1	94.2
EBITDA	(9)	(8)	15	36	68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2.4	91.2
영업외손익	(0)	(0)	(0)	(0)	(0)
이자수익	0	0	1	4	6
이자비용	0	0	0	0	0
지분법손익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0	0	(1)	(4)	(6)
세전순이익	(10)	(9)	13	34	66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54.7	95.1
법인세비용	0	0	1	3	7
당기순이익	(10)	(9)	13	30	59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1.2	95.2
지배주주지분	(10)	(9)	13	30	59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1.2	95.2
비지배지분	0	0	0	0	0
EPS(원)	(905)	(707)	996	2,403	4,689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1.2	95.2
수정EPS(원)	(905)	(707)	996	2,403	4,689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1.2	95.2

주요투자지표

	2023A	2024A	2025E	2026E	2027E
주당지표(원)					
EPS	(905)	(707)	996	2,403	4,689
BPS	740	1,705	2,724	5,127	9,816
DPS	0	0	0	0	0
밸류에이션(배, %)					
PER	n/a	n/a	100.4	41.6	21.3
PBR	n/a	6.2	36.7	19.5	10.2
EV/ EBITDA	n/a	n/a	85.3	34.6	17.5
배당수익율	0.0	0.0	n/a	n/a	n/a
PCR	n/a	n/a	87.3	39.4	20.5
수익성(%)					
영업이익율	(520.1)	(107.2)	32.2	44.3	49.3
EBITDA이익율	(467.6)	(93.3)	35.2	46.4	50.9
순이익율	(526.1)	(109.5)	30.1	39.4	44.2
ROE	(75.9)	(60.1)	45.0	61.2	62.8
ROIC	(72.3)	(55.0)	80.2	130.6	165.0
안정성 (배, %)					
순차입금/자기자본	26.5	(36.2)	(40.2)	(55.0)	(63.1)
유동비율	87.2	423.8	408.4	571.6	716.2
이자보상배율	(46.6)	(22.2)	59.8	156.6	304.2
활동성 (회)					
총자산회전율	0.1	0.4	1.1	1.2	1.2
매출채권회전율	2.6	3.3	5.2	5.0	5.1
재고자산회전율	2.1	7.2	18.5	18.0	18.5
매입채무회전율	3.2	8.3	12.8	11.3	11.7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

